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상담 사역의 대모(代母) 양은순 총장 인터뷰



6 대담 및 정리: 안석서(서울기독대학교 치유상담대학원 교수)

행복한 결혼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노력 없이 저절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결혼도 준비가 필요 합니다.

양은순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가정사역 전공으로 석사학위, Dick 대학교에서 박사(Ph.D.)를 취득했다. 가정사역 전문 출판가판인 HOME의 설립자이며, 가정사역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문 가정사역자 배출을 목표로 설립된 HIS University의 총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며,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기르자)외 78권 이상의 역사와 사명과 행위의 초대)외 8권의 저서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영남 승인 결혼가정 상담사(MFT)이며, 명성심리치유 및 놀이치료를 통한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교 총장님으로서의 행정업무, 상담전문가로서의 상담사역, 가정사역 순회교육으로 매우 분주하게 지나시리라 생각하는데도,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잠시 귀국하여 며칠 전부터 전주에서 가정사역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어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교육이지요. 교육을 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자녀 양육 실태에 아찔한 위기감을 느끼곤 해요. 하루 빨리 많은 부모와 상담자들에게 건강한 가정사역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총장님을 가정사역의 대모(代母)라고 부르는데요, 총장님께서 가정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를 가정사역의 대모라 불러요? (웃음). 그렇다면, 아마도 1982년 초판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때문 일거예요. 이 책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책을 거듭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배출되었어요.



HOME을 모체로 Home International School에서 양급자를 위해 HIS University가 설립되었던 것이고, 남편의 치료를 위해 온 미국에서 HIS University를 설립과 남편의 치료와 함께 이루어졌으니, 그 감격이 남달리요.

박사님께서도 현재 HIS University 총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대학교도 설립하셨고요. 대학설립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요, 가정사역을 위해 대학을 설립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정사역이라는 특화된 분야의 대학을 설립한 이유가 있습니까?

HIS대학은 가정사역 전문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정식 학위를 수여함으로써,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어요.

2002년,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편이 나무에서 떨어져 뇌를 다치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남편은 거의 치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셨어요. 사고가 있었던 그 당시에 저는 HOME 사역과 함께 고 대학교의 상담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많이 다친 남편의 치료를 위해 저는 미국을 가게 되었지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던 HOME은 전국에 지부를 설립하던

서 많은 가족전문 상담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상담사로 채용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들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HOME을 모체로 Home International School에서 양급자를 위해 HIS University가



설립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편의 치료를 위해 온 미국에서 HIS University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 미국에서 남편의 치료와 대학 설립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대학설립이 남편의 치료와 함께 이루어졌으니, 그 감각이 남달라요. 말씀 드린대로 남편의 사고와 치유과정은 HIS University의 설립과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남편의 사고와 치유의 과정은 제가 전인지유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대학 설립부터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HIS University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HIS University는 가정사역과 기독교가정상담 박사(Ph.D.)를 배출하는 세계 유일의 대학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정 사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대학이라는 말은 단순한 박사학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전인지유를 경험하는 기독교상담 사역자를 길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일에 HIS University가 귀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위기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 가정사역자들을 HIS University를 통해 양성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큰 비전이에요.

요즘은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지만, '가정사역'이라는 말이 생소하던 시절이 있었죠? 총장님께서 특별히 가정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1976년도부터 가정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총현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라는 집회(사흘 동안 있었는데요, 세 명의 강사 중 두 명은 외국인)였고, 거기에 제가 있었죠. 그때부터 가정사역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1970년도에 결혼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행복한 결혼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거죠. 결코 노력 없이 저절로 행복하게 살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결혼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출판사에서 일하던 남편은 결혼과 가정사역에 관한 외국의 원서들을 가져와 제게 번역역을 부탁했습니다. 그 책들을 번역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가정사역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번역자로서, 강사로 초청받기 시작했어요. 매번 세미나 때 남편은 저를 적극 지지해 주었고, 남편의 지지 덕분에 결국 가정사역자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최초의 결혼이야기와 마지막 혼인 예식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기독교관계를 통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처럼 가정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정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정사역을 하고 계시는 총장님은 성경에 기초한 가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메 처음 책은 개인 차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결혼 이야기가 있지요. 당연히 주례자는 하나님이지요. 신약의 메 마지막 혼인 예식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관계를 모르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성경은 가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 신방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기독교관계를 통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처럼 가정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프랑스의 절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자 이동소이과 의사이며, 정신분석가인 프랑소와즈 돌토(F. Dolto) 역시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 하고 있는 공판문을 가족관계 안에 해석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가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가정을 살펴보면 많은 위기를 발견할 수 있지요? 교회에서도, 가정사역자들도 가정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가정은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정들 역시 모두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정의 행복은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또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한 가정은 세 하늘과 세 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신앙가운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정이라 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문화자들의 가정을 보더라도 위기를 느낍니다. 사모들이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적절하게 분출하며 해소해야 하는데, 안에서 풀아 터지지게 된 셈이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부터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은 가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내부모자들을 상담하면서 가족관계로부터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사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가정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바람직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가정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위주의 가정사역은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부학교를 한다고 합니다. 부부들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가정일 경우에 부부학교 그 자체는 그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은 대상에 맞는 옷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보다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정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닌, 가정 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문제 있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사역은 무엇보다, 그 어떤 사역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가정은 천국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의 시작은 프로그램이 아닌, 성경에 기초한 가정에 대한 개념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안석 서울기독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상담학교수, 치유상담대학원 주임교수 및 신학과 학과장, 프랑스 트라스부르그 국립대학교 Ph.D,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상담심리지도 수퍼바이저 및 상임위원, 한국 상담전문대학원협의회 상담전문가, 한국교회상담학회 상담 수퍼바이저 및 운영위원, (사)한국군정당회 군상담 수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장성신 석과 기독교상담)의 몇 권의 저역사가 있다.